

# 페루, 향후 5년간 758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추진

2016년 4월 4주차

## [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]

3월 30일, [경제] 페루 향후 5년간 758억 달러  
프로젝트 계획

4월 2일, [경제] 페루 남미에서 광산 채광업에 투자  
할 만한 두 번째로 매력적인 국가로 선정

## [참고자료]

Andina, The World Bank

지난 3월 30일, 페루 현지 매체인 안디나(Andina)는 2016~2021년 동안 페루 리마 상공회의소에 의해 시행될 262개의 프로젝트 규모가 약 758억 달러(약 86조 5,700억 원)에 달한다고 밝혔다.

## 페루, 광산 채광업에 투자 가치 있어

지난 4월 2일, 캐나다의 경제연구소인 프레이저연구소가 주관한 ‘2015 광산업계 연례 조사(Annual Survey of Mining Companies 2015)’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중 칠레에 이어 페루가 광산업에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국가 2위로 선정되었다.

프레이저연구소는 전 세계 3,800개 광산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, 국가별 광산업에 대한 지원제도, 세제 및 규제와 같은 정책 요인과 기술 부문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광업 투자 가치 여부를 조사하였다.

평가 기준에 있어서 대상국가의 지질학적 잠재력 지표가 60%를 차지했으며, 40%는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요소들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었다.

결과적으로 북미 대륙은 광산 투자 적격지로서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, 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79.8점으로 1위 그리고 69.3점으로 페루가 2위를 차지하였다.

## 정부, 채굴 광산업에 집중 투자 예정

세자로 페냐란다(Cesar Peñaranda) 리마상공회의소의 경제산업진흥협회(IEDEP, Institute of Economics and Business Development)전무는 “페루 정부가 2016~2021년간 다양한 산업에 758억 2,800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”이라며, “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투자, 공기업-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, 관세 조정을 위한 준비도 포함되어 있다.”고 설명했다.

투자규모가 총 758억 달러에 이르는 이번 프로젝트는 페루 전체 GDP의 15%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이다.

페루의 경제산업진흥협회(IEDEP)에 따르면, 민간 영역의 투자는 GDP의 20%에 해당하며, 국내 총 투자의 79%에 이른다.

5년간 페루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는 광산 채굴업, 탄화수소산업(Hydrocarbon) 그리고 전력산업이다.

가장 많은 투자가 책정된 광산 채굴업의 경우 43개 부문에 총 411억1,3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.

그 뒤를 이어 탄화수소산업은 1개의 석유 프로젝트와 5개의 가스 프로젝트로 총 6개 프로젝트에 97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. 끝으로 46개의 프로젝트에 48억 7,900만 달러가 전력산업에 투자되어 전력 인프라를 확충시킬 예정이다.

## 공기업-사기업 파트너십을 활용한 투자

프란시스코 댄레르(Francisco Dumler) 페루 주택/건설 및 안전부 장관은 “공기업-민간기업 파트너십을 활용한 투자는 산업발전에 있어서 네트워크 및 사업범위 확장이라는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, 해당 해당 산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”라고 밝혔다.

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
주간이슈분석은 지역 전문가로부터 별도의 자문을 구한 후 등재되며,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작성 : 홍 성 일

자문 : 차 경 미(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)